

국제죽산예술제 설치 계획

(1998.6.4-7,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775-1번지)

이 영 희

1. 발굴-틈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 누적된 흔적.
시간과 역사의 흔적으로서의 공간, 그것의 조용한 드러남
발굴된 유물의 파편과 파편 사이의 틈.
틈 사이를 비집고 자라나는 풀들, 현재의 조용한 진행. 그리고 순환의 느낌.
현재와 지나간 시간의 공감대.

1) 시간

유물들은 평범한 삶 속의 흔적일 수 있으며(사용된 토기), 그 발굴된 토기의 단순한 문양들-자연을 소재로 한 소박한 문양들(번개문양, 비, 빗살 등..)은 파편들 위에 언뜻언뜻 드러난다. 곱게 치장하지도 않고 야심만만한 작업도 아닌 그저 삶 속에 조용히 스며있는 흔적으로서의 유물, 그것은 오랜 시간동안 흙과 나뭇잎, 그 밖의 여러 자연들과 함께 조용히 누적되어 어느 순간 가만히 드러난다.

이들은 독립된 실체가 아닌 누적된 자연과(흙과 나뭇잎과 돌과..) 서로 하나가 되어 현재의 시간 속을 조용히 두드린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조용한 울림이 된다. 이들은 단순한 사실 기록으로서 존재하는 화석화된 정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종적인 (시간적 의미에서) 사건이나, 기록들을 해체하여 시간 그 위를 넘나드는 조용한 울림이 된다.

기실 발굴된 여러 유물들이 내게 다가오는 정서란 그런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색되고 파편화되고.... 그 파편의 틈 사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되는 자연의 흔적이 현재 그렇게 또한 진행되는 것이다. 빛을 향하여 풀들은 조용히 자라 올라오는 것이다.

다시 바람도 불 것이며, 흙도 쌓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언뜻 파편 하나가 조용히 들어 올려 지거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놀랍게도 조용히 뒤쪽의 빛(역광) 속에서 은근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떠들썩하게 자연을 바라볼 수 없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자연의 모두는 아니기 때문이다.

땅은 얼마나 깊고, 하늘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삽자루 하나로 파들어 간 땅 속, 그 속살 같은 흙 한 삽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숨어있었던가?

나는 간단히 저 땅 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흐른다는 곳까지 숨 가쁜 상상으로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 눈길이 닿이는 이 표면에서부터.



2) 공간

내게 있어 이곳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 이상의, 그 너머의 공간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시간을 넘나들게 하는 공간이다.

나는 빛이 좋은 봄날, 자잘한 풀들을 뜯어 돌맹이로 찢고 흙으로 버무려, 반반한 돌맹이 위에 상을 차렸다. 고막껍질과 자잘한 돌맹이들 위에는 엄마가 하였던 반찬과 밥, 국들은 모두 올라앉는다. 혼자 중얼거린 대화들... 양지바른 무덤 주변에 피어있던 제비꽃. 누워 바라본 하늘, 돌맹이 모양 같던 구름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간혹은 빨리 지나가기도 하였지. 논두렁, 물기가 조금 있었던 논두렁에 뽀록뽀록 거품이 올라오면 그건 우렁이가 숨쉬는 것이라 생각했지. 얼른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손가락 깊이만한 그 공간이 얼마나 넓고 또 넓게 느껴졌던가? 그 정적이란... 손가락 깊이만한 그 땅 속에 모든 우렁이들이 숨을 죽이는 소리 같았어. 논둑에 밭둑에 저수지 둑에 갓 올라온 봄풀, 그 냄새, 그 봄기운!

침묵과 고요가 충만한 이 곳, 그 속에는 어린 시절처럼 많은 시간과 이야기들이 넓게 스며 있다.

3) 시간과 공간의 복합적인 상징-틈

파편들의 틈 사이에 자라난 풀들은 시간과 공간의 복합적인 기호로 상징화된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해체하고, 연속적 시간의 진행을 무너뜨려, 시간을 거슬러가게도 먼 시간을 현재로 느끼게도 한다. 그것은 이쪽과 저쪽의 통로이며 그 경계이다.

4) 빛

작품은 낮은 둔덕의 낮과 밤에 계속 드러나 있으며, 낮에는 햇살 속에서, 밤에는 인공조명을 통하여, 빛의 양과 방향의 변화로 변화와 시간성을 느끼게 하도록 할 것이다.

빛은 파편들을 전체적 이미지로 연결하거나, 또한 과거를 드러내게도, (역광에 의한 작품 속의 드러내임-쌓여진 층들) 현재를 응시하게도(낮의 자연광을 통해 작품의 표면을 드러내기)하며, 시간적 과정을 통해 안과 밖을 복합적으로 겨안기도 할 것이다.

역광은 작품의 뒤면에서 묵직한 작품의 중량감을 가볍고, 투명하게 변화시키며, 시간의 깊이 속에 한켜 한켜 쌓여진 흔적들을 일순 가볍게 드러내기 조차한다.

야외의 자연광은 방향과 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절되며, 이는 과거의 유물을 통하여 현재의 드러남이라는 시간적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작품은 낮과 밤, 즉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할 것이다. 낮은 햇빛이라는 자연조명에 의해 주로 정면이나, 측면 등 작품의 외부에 비추이며, 이는 작품의 표면적 질감과 색감,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하고, 도톰한 질감 등에 생기는 그림자에 의해 그 표면적 깊이(부조적 효과)를 더하게 할 것이다.

어두움이 내리면서 작품의 뒷면에 의도적으로 설치된 인공조명은 역광으로 작품을 비추고, 이로 인해 영긴 내부의 숨과 숨 속의 나뭇가지, 나뭇잎 등이 은은히 그 모습이 드러나며, 각각의 파편은 실루엣으로 느껴지게 할 것이다. 빛의 효과로 얻어지는 깊숙하고, 드라마틱한 공간감은 세월, 시간의 깊이를 가늠해 주는 시각적 단서로 제공될 것이다.

2. 작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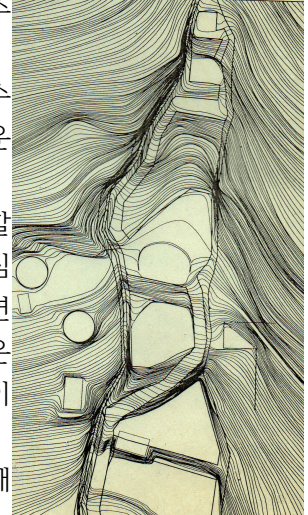
1) 설치 장소 및 도면

자연을 거스르거나 야심찬 변형이 아닌, 이 곳 야외 환경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히 드러나도록 한다.

이곳 자연이 이루어 놓은 비스듬한 산비탈의 작은 둔덕을 절제하여 수용하고, 둔덕의 높이를 작품의 높낮이, 즉 시선을 이끄는 자연스러운 조절체로서 활용할 것이다.

특히, 비탈길을 따라 형성된 작은 흠길과 흠 공연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 주변으로 야트막하고 비스듬한 둔덕들이 이들 중심장소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정점(중심부분의 맨 끝 둔덕)을 향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한다. 둔덕을 스치며 공연장으로 향하는 흠길은 설치작품 감상의 또 하나의 동선이 되며, 이 흠길 또한 시선이 움직이는 길, 또는 감상자의 동선이 될 것이다.

감상자는 입구에서부터 길을 따라 비탈길을 올라오면서, 정점을 향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작품이 구체적으로 서서히 가깝게 클로즈업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인 감상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서 얻는 무의식적이고 부수적인 시각 체험이 될 것이다.



2) 조명 계획

조명은 작품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밤 공연의 장소를 안내하는 길잡이(등불) 같은 조용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즉 조명이 심리적 역할(작품 주제와 관련하여)과 조형적 역할, 그리고 기능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료의 연구

재료에 대한 나의 입장은 개방적이다. 재료, 기법에 관한 것은 소통의 방식을 위해 끊임없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재료 자체가 감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의도에 따라 재료 고유의 특징을 잃기도 한다. 즉 재료가 표현의 종속적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적 수단 이상의 가치를 갖게도 한다. 예컨대 재료 자체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즐겨 쓰는 광목, 가제, 마, 삼베, 목실, 솜 등은 짜여진 섬유 조직들의 미세한 차이가, 빛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드러남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천연 섬유가 '죽음과 연관된 의례행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음과 옛 서민층의 보편화된 의복이나 각종 생활 재료였다는 점에서는, 그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정서를 나의 관심주제와 연결시키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편으로 이들 재료들은 화학재료에 의해 딱딱한 형태로 변형되며, 이는 오래된 시간적 흐름을 암시하는 화석화된 이미지로서 차용된다. 특히 자외선, 풍우, 냉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야외에 전시될 경우를 감안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 비교적 내후성이 좋은 PVC 졸을 사용한다. 또한 냉해를 받을 경우 충격에 대한 강도가 급속히 저하되는 PVC 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제를 첨가한다. 또한 이들 작품을 조명과 함께 연출할 경우 작품의 내열 온도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이 잘 안되어 위생적이며, 투명성이 뛰어나 기본적인 섬유작업 등을 드러내게 하며 중첩의 효과도 가능하게 하는 이들 재료를 이용한다. 또한 이는 탄성이 강하고 접착성이 좋아 황토가루나 톱밥, 나뭇잎, 각종 가루 등을 누적시키는 층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4) 표현 및 제작 기법

깨어진 토기의 파편 이미지를 , 두툼한 솜과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넣고 황토와 갈색톤으로 염색한 광목, 가제, 마 등을 토기의 문양 등으로 재봉질하여 두툼한 부조적 효과를 낸다. 여기에 펄프와 톱밥 등을 염색하고 나뭇잎, 가지 등과 목공용 본드를 버무려 파편의 부분 부분에 덧발라 말림으로서 쌓여진 흙의 이미지(발굴현장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를 나타낸다. 이들은 화학재료에 의해 딱딱한 화석의 이미지로 변화하며, 이는 황토물의 흠뿌림으로 더욱 극적으로 강화된다.

3. 설치 일정

조명설치 및 현장에서 공간과의 조화를 살피며, 설치를 해야 함을 생각할 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 1) 다른 작가들과의 주제나 설치 장소에서의 조화로운 연결
 - 2) 전기 조명 설치의 문제, 혹은 전기가 안된 조명 설치의 가능성
 - 3) 조명으로 인한 작품 주변 인화 물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의 검토
 - 4) 작품을 둔덕 위에 세우는 방법상의 문제
 - 5)자연적 환경에 작품을 적응시키는 문제
- 사용된 PVC졸로 작품의 표면이 덮혀 있는 상태이므로 빛이나, 비, 바람 등에 (특히 6월초순의 자연환경에서는) 별다를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바람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방향이라든지, 우천시 물이 고이거나 패이는 곳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